
제주월드컵경기장 효율적 활용에 따른 경영수익 확대 방안 해외사례 조사보고

2015. 6.

관광사회문화부 최 영 근



I. 출장 개요

1. 배경

- 제주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후 제주유나이티드 FC 프로 축구팀의 홈구장(2006년 2월부터)으로서 제주의 축구 메카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사후활용 방안 미흡으로 인한 유지·관리에 어려움 있고, 이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음(2014년말 기준 406,756천원 적자)
 - ※ 최근 5년간 적자가 33억 5천만원 이상에 달함
- 따라서 제주월드컵경기장의 효율적 이용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는 방안 모색과 수익을 창출하는 시설로서 가장 적절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목적

- 제주월드컵경기장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익성 제고 및 사업 다각화 방안 모색
-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적극적 활용 방안 모색으로 경기장의 원활한 이용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적자규모를 줄임으로써 경영수익 확대 제고
- 이에 따라 2002년 우리나라와 함께 월드컵을 개최한 일본을 방문하여 월드컵경기장의 운영현황과 경영수익 창출 및 확대 방안 벤치마킹

3. 일정 및 대상

- 출장기간 : 2015. 5. 17 ~ 5. 20(3박 4일)
- 출장지역 : 일본 도쿄, 요코하마, 사이타마
- 출장자

소속	출장자
제주발전연구원	최영근 전문연구위원

○ 세부일정

일시	시간	세부일정
5.17 (일)	08:00 15:00	제주공항 출발 부산 경유 도쿄 나리타공항 도착 시내로 이동 도쿄돔 방문 조사
5.18 (월)		닛산스타디움(요코하마 월드컵경기장) 방문 조사 (가나카와현 요코하마시 소재)
5.19 (화)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사이타마 월드컵경기장) 방문 조사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소재)
5.20 (수)	09:45 19:00	나리타공항 출발 제주도착 및 국외사례 조사종료

II. 주요 조사내용

1. 일본월드컵경기장의 공통적 특징



<그림 1> 일본월드컵경기장의 현황

- 일본은 2002년 월드컵대회 개최를 위해 경기장을 건설할 때 향후 부담을 고려해 축구전용경기장은 3개만 짓고 나머지는 다목적 종합경기장으로 건설함

- 현재 경기장은 프로축구경기과 대규모 공연 등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용 일수가 적어 대부분 적자를 내고 있음
- 여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건설 채권을 변제해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음
- 일본의 10개 월드컵경기장 가운데 흑자가 기대되는 곳은 홋카이도(北海道)의 삿포로 돔구장과 건설 당시 민간 책임경영을 계획했던 고베(神戸) 원 스타디움 정도임
- 그러나 나머지 경기장은 가동률이 낮아 입장료 수입만으로는 거액의 유지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형편으로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한국이 월드컵경기장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하거나 서울월드컵경기장처럼 다양한 수익 시설을 유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의 자치단체는 수년간 이어진 경기불황으로 주변시설을 증설할 자금이 없어 고민하고 있음
- 특히 한국이 경기장내 쇼핑센터나 영화관 유치를 통한 수입확충에 부러움을 사고 있음
- 일본의 모든 경기장은 빗물을 정화시켜서 잔디에 물(정화시설이 좋아서 2급수 이상의 물. ※ 2급수는 현재 청계천의 물의 급수임)을 줌
- 또한 테러에 대비하여 4분 이내에 수만여명의 모든 관중들이 경기장 밖으로 대피(장애인도 포함한 대피 시설)하여 나갈 수 있도록 설계 되어 있음
- 일본 대부분의 경기장은 관중석의 경사가 낮아서 시각적으로 웅장함을 뽐냄
- 더불어 경사가 낮아도 과학적으로 설계 되어서 시야가 탁 트이게 되어 있음
- 초고속 무선인터넷은 물론 소음에 대비하기 위하여 휴대폰의 통화 음성을 증폭 시켜 주고 음성을 또렷하게 해주는 기지국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음
- 지진에 대비하여 건축 공사의 모든 부분에 완충 작용을 적용 하였고 관중석의 그룹 블록마다 완충장치가 되어 있어서 관중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일본이 보여준 지진에 대비한 대표적 특징임
-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
- 장애인용 휠체어 계단과 충분한 개수의 장애인용 화장실을 배치하였고 장애인석에 긴급 상황 시 안전요원을 호출할 수 있는 비상벨이 있음

2. 방문경기장

1) 도쿄돔

(1) 기본현황

- 소재지 : 일본 도쿄도 분쿄구 고라쿠 1-3-61
- 구분 : 야구경기장 및 다목적 스타디움
- 개장 : 1988년 3월 18일(1985년 기공)
- 소유 및 운영주체 : 주식회사 도쿄돔(순수 민간회사임)
- 표면 : 인공 잔디(필드 터프)

- 건설비용 : 약 350억엔
- 사용처 : 요미우리 자이언츠(1988년~현재), 홋카이도 닛폰햄 파이터스(1988년~2003년, 2004년 이후는 준본거지로서 사용), 아시아 시리즈(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한일 클럽 챔피언십 (2010년)
- 수용 인원 : 5만 5천명(실제로는 4만 2천명과 입석 3천명 등 45,600명)
- 규모 : 면적 13,000m², 좌우 100m(약 328.1ft), 중건 122m(약 400.3ft), 좌우중간 110m(약 360.9ft)
- 층수 : 지하2층, 지상6층(최고 높이 - 56,190m)

(2) 개요

- 도쿄돔(Tokyo Dome)은 일본 도쿄도 분쿄구에 있는 일본 최초의 돔구장임
 - 1985년에 착공하여 1988년 3월 18일에 개장했으며 현재 일본 프로야구팀 요미우리 자이언츠가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 흰색의 돔 지붕이 전체적으로 계란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의미에서 일명 빅 에그(BIG EGG)라고도 불림
 - 돔을 가압 공기를 이용하여 부풀리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돔 내부의 기압은 바깥에 비해 0.3퍼센트 높음
 - 미국 미네소타 주에 있는 메트로 돔을 모델로 함
- 도쿄돔시티(문화복합레저공간)는 레저시설과 상업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루 중 24시간 운영될 수 있으며 연이용일이 365일 가능하며 방문객 1,000만명에 육박하며 부대시설 가동률은 90%이상임. 또한 연 매출 수입은 약 1조원(약 934억엔)



<그림 2> 도쿄돔시티 안내도

- 도쿄돔은 하루 중 24시간 운영될 수 있으며 일 년 내 최대 365일 사용이 가능
 - 정기시즌 야구게임을 위한 일 년 125일 사용과 남은 240일 동안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연회 등으로 나누어 사용됨
 - 도쿄돔 연간 사용률은 스포츠 및 기타 이벤트를 포함하며 셋업과 해체로 사용되는 일수도 포함함

- 도쿄돔은 야구 외에도 대형 콘서트, 전시회 등의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음
 - 도쿄돔은 최초 야구경기 뿐만 아니라 공연 및 기타 이벤트로도 사용할 목적으로 설계됨
- 각종 대형 전시회장으로 사용되며 또한 유명 뮤지션의 콘서트 회장으로도 유명
 - 아티스트의 지명도와 인기의 척도. 보통 4만 5천명~5만 5천명 정도 수용이 가능함
 - 도쿄돔 매진기록이 있는 뮤지션은 오자키 유타카, X Japan, B'z, 사잔 올 스타즈, LUNA SEA, 자니스의 SMAP, 아라시, 여자가수로는 아무로 나미에, 퍼퓸 (일본), 미즈키 나나, AKB48, 카라, 소녀시대 등이 있음
- 국내 가수 중 도쿄돔에서 공연한 가수는 비, 동방신기, JYJ, 슈퍼주니어, 빅뱅, 카라, 2PM, 소녀시대, 샤이니 등임



<그림 3> 도쿄돔 전경



<그림 4> 도쿄돔 경기모습



<그림 5> 도쿄돔 내·외부 상점가 모습

(3) 특징

- 펜스 거리는 좌우 100m, 가운데 122m이나 도쿄돔 지붕을 부풀리기 위해 상승기류를 발생시키는데 이로 인해 홈런이 잘 나오는 것이 특징임
 - 또한 펜스 모양이 보통 구장이 부채꼴인데 비해 이 구장은 특이하게 마름모꼴에 거의 가까운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중간펜스의 거리가 특히 짧음
- 이 구장은 지붕이 있기 때문에 독특한 그라운드룰(일본에서의 명칭은 로컬룰)을 가지고 있음. 타구가 인필드지역의 천장에 맞으면 그대로 플레이가 인플레이 상황이지만 반대로 파울지역의 천장에 맞으면 그대로 파울이 됨
 - 도쿄돔 관중석 상단에 있는 광고판들, 천정 위 가운데에 있는 대형 카메라가 있는데, 시즌 중에 홈런 타구가 여기를 맞추면 그 타자에게 상금이 주어짐
- 도쿄돔은 설계이전부터 다목적 홀을 목표로 건설함
 - 설계 당시 프로야구팀인 요미우리 자이언츠, 니혼햄 파이터스(현재 홋카이도) 두 곳이 도쿄 프랜차이즈였음
 - 야구경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했음. 그리고 콘서트 및 전시회 등도 개최할 목적으로 설계함
- 진도 7에 견디도록 내진 설계를 해 놓았음

2) 닛산 스타디움(요코하마 월드컵경기장)

(1) 기본현황

- 개장일 : 1998년 3월 1일(건설기간 : 4년)
- 소재지 :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고호쿠구(신요코하마공원에 있는 종합경기장)
 - 요코하마시 중심부에서 6km 떨어진 신요코하마역 근처에 있음
- 홈 구단 : J리그의 요코하마 F. 마리노스
- 경기장형태 : 종합경기장
- 수용규모 : 72,327석(규모 - 잔디면적 107×72m, 육상 트랙 400m×9레인)
- 건설비용 : 603억엔
- 일본 최대 규모의 경기장으로서 부지면적 14만 2000㎡에 지상 7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고 높이는 약 52m에 이름
- 2004년 10월 7일 닛산자동차가 5년간 약 23억 5,000만엔에 명명권을 취득해 2005년 3월 1일부터 닛산 스타디움(日産スタジア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2) 개요

- 일본이 자랑하는 아시아의 최고라고 칭하는 경기장임. 아시아 최대 규모와 세계 최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경기장임
- 경기장 인근에 흐르는 츠르미가와강의 우수지 주변의 70ha에 이르는 우수지를

- 종합운동공원 조성의 일환으로 건설한 것인 만큼 일본 제2의 경제도시답게 수익 시설보다 건강을 위한 시민편의 시설 위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경기장 북동측 스탠드하부 5,500평에 스포츠키뮤니티 플라자와 스포츠과학센터를 설치하여 시설물 유지관리는 요코하마시에서 설립한 27개의 시립스포츠시설을 관리하는 ‘스포츠진흥사업단’ 직원 30명이 상주 관리하고 있음
 - 스포츠과학센터는 지상 2, 3층 좌측에 위치하여 2층에는 스포츠클리닉, 락커룸, 수영장, 트레이닝룸, 실내체육관이 있고 3층에는 연수실, 회의실, 의과학갤러리, 의과학 도서관 등이 있음
 - 스포츠 커뮤니티 플라자는 지상 2, 3층 우측에 위치하여 아쿠아존, 바데존, 탈의실, 레스토랑 등이 있고 요코하마 스포츠 정보센터는 지상 2층 우측에 위치하여 스포츠정보안내소, 열람실, 매점, 아동보육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01년 FIFA 컨페더레이션스컵과 2002 한일 월드컵의 결승전이 열렸으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도요타컵과 그 후의 FIFA 클럽월드컵 결승전이 이곳에서 열리고 있음
- 이 경기장은 2002 월드컵의 하이라이트인 준결승에서 터키를 꺾고 올라온 브라질과 한국을 꺾고 올라온 독일과의 월드컵 결승전 경기가 펼쳐진 경기장임
 - 장점중 하나는 현장감 넘치는 시합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맨 앞의 관중석이 필드와 동일한 높이에 위치해 있음
 - 또 일본 최초의 설비로서 경기장내를 100m를 7초의 속도로 작동하는 자주식(自走式) 카메라가 경기장 위에 설치되어 있어 선수들의 연속적인 움직임을 선명한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이 영상은 스탠드 양측에 설치된 2대의 대형 스크린에 비춰지게 됨
 - 잔디밭 관리도 완벽해서 2001년 6월 7일에 개최된 컨페더레이션스컵 준결승전에서는 호우 속에서도 물웅덩이 하나 생기지 않는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음

(3) 특징

- 일본에서 최초로 2층식 구조로 설계되어 2층 관중석을 돌출시켰으며, 육상 트랙과 관중석 높이도 75cm 가량 낮추어 선수와 관중 사이의 거리감을 좁힘으로써 스탠드 최상단에서 운동장까지의 거리가 60m에 지나지 않음
- 지붕은 특수소재로 되어 있음. 태양열을 받아서 조명의 일부 전력으로 사용함
 - 관중석 72,327석의 4분의 3을 스테인리스 금속판 지붕으로 덮었는데, 이는 FIFA (국제축구연맹)의 기준에 따른 조치로 관객을 비바람으로부터 지켜줄 뿐 아니라 소리와 조명의 효과를 높여주기도 함
 - 일본 여러 전자업체의 합동기술로 음향시설이 최적화 되어 있음
- 영상 스크린(9m×19m), 공기구동식 자동 이동 카메라(100m당 7초의 고속장치), 폐기물 이용 발전시설(1시간당 1100kw)을 설치하고, 스포츠의학센터를 병설하였음.

- 관객들의 출입은 컴퓨터로 자동 통제되며, 주차장은 8700대(근린 주차장 포함) 규모임
- 2002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닛산스타디움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스타디움 활용 방안으로 웨딩사업을 실시
 - 요금은 250,000엔+소비세, 하객 50명, 대기실, 꽃장식, 대형영상장치 1기, DVD 1편, 음향, 주차비 포함(우천시 실내 이용)
 - 주요 호텔과 협력하여 숙박, 피로연 행사 연결 가능
 - 영화, TV드라마, 광고, 잡지 등 다양한 매체의 촬영과 취재를 지원하는 사업(요금은 3시간 기준 32,050엔)
 - 촬영 가능지역은 스타디움 내부(트랙, 스탠드, 락카룸 등) 및 외부임
 - 화장실이 경기장 전체를 트랙처럼 쭉 트여지게 설계됨
 - 화장실 소요시간이 많은 여성들을 위하여 여자 화장실을 1.3배 많이 배치함
 - 콘서트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하지만 기존 자리에 임시 자리를 더한 수용인원은 일본 최대 약 7만 5천명에 달하기 때문에 아티스트는 매우 높은 관객 동원력이 요구됨
 - K팝의 성지로 2013년 동방신기가 공연을 해 화제가 되기도 했고, 그 외에도 B'z, 야자와 에이키치, 사잔 오루 스타즈, SMAP, 미스터 칠드런, 글레이, 유즈, AKB48 등이 공연함
 - 가나가와현은 요코하마(横濱) 종합경기장을 결혼식장으로 개방, 2시간 25만엔에 빌려주거나 운동장 시설이 빈약한 학교에 각종 행사 장소로 빌려주고 있음
 - 일반인들의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거나 무료 견학을 실시하는 곳도 있음
 - 수익시설보다는 시민편의 시설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
 - 요코하마시는 경기장 운영적자를 줄이기 위해 경기장 명명권을 닛산 자동차에 매각하여 유럽의 경우처럼 경기장 안에 식당이나 연회장을 만들어 지역주민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음
 - 그 결과 지난 2004년 10월 7일부터 닛산 자동차가 명명권을 취득해 2005년 3월 1일부터는 지금의 '닛산 스타디움'으로 명칭이 변경됐음

(4) 사업

① 스타디움 웨딩사업

- 목적 : 2002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닛산스타디움을 널리 홍보함과 동시에 새로운 스타디움 활용 방안으로 웨딩사업을 실시
- 일자 : 2015년 5월 31일, 6월 28일, 7월 4일, 9월 13일, 10월 18일, 11월 8일
- 시간 : 제1조(11:00), 제2조(13:00), 제3조(15:00), 제4조(17:00)
- 장소 : 닛산스타디움(우천시 실내 이용)
- 요금 : 250,000엔 + 소비세
 - 하객 50명 한, 대기실, 꽃장식, 대형영상장치 1기, DVD 1편, 음향, 주차비 포함

- 기타 : 주요 호텔과 협력하여 숙박, 피로연 행사 연결 가능



<그림 6> 닛산스타디움웨딩사업 관련 이미지

② 촬영 및 취재지원 사업

- 목적 : 영화, TV드라마, 광고, 잡지 등 다양한 매체의 촬영과 취재를 지원하는 사업
- 촬영 가능지역 : 스타디움 내부(트랙, 스탠드, 락카룸 등) 및 외부
- 요금

구분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
요 금	1회(최대 3시간) 10,500엔 초과 30분 당 2,625엔	1회(최대 3시간) 21,000엔 초과 30분 당 5,250엔
	행위허가사용료 1일 6,300엔	행위허가사용료 1일 12,400엔
	촬영출입요금 1회(최대 3시간) 10,000엔 초과 30분 당 5,250엔	
	합계(3시간) 32,050엔	합계(3시간) 32,050엔

③ 기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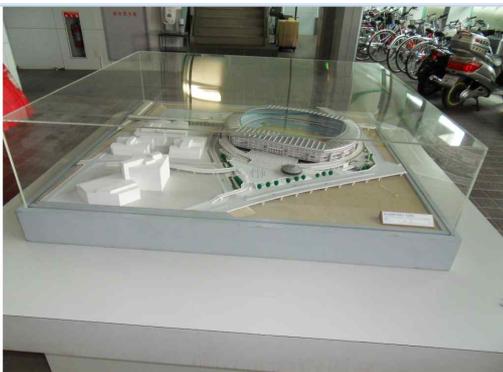
- 학교스포츠교실
- 육상교실
- 스타디움투어
- 지역 자원봉사 등



<그림 7> 닛산 스타디움 안내도



<그림 8> 닛산 스타디움 전경



<그림 9> 닛산 스타디움 모형도 및 광장

3)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사이타마 월드컵경기장)

(1) 기본현황

- 소재지 :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미도리구(소유 : 사이타마 시)
- 형 태 : 축구 전용경기장
- 수용규모 : 63,700석(규모 - 105×68m)
- 개장 : 2001년 7월 완공(기공 - 1998년, 건설기간 - 3년)
- 사용처 :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 (J리그)

(2) 개요

-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는 처음부터 '세계 수준의 경기장 마련'이라는 월드컵 유치의 목적에 따라 계획됐음
 - 이런 이유로 시내중심지에서 한참 떨어진 외곽에 배치돼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서만 활용되고 있음
 - 현재 일본 프로축구 J리그의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즈(Urawa Red Diamonds)의 홈구장으로 활용되고 있음
- 사이타마(埼玉) 스타디움도 다른 지역 스타디움과 사정은 비슷해 프로축구 J리그 경기를 유치해 연간 가동 일을 늘림으로써 운영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은 축구전용구장으로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아시아에서 서울월드컵 메인 스타디움에 이어 수용인원, 부지면적, 건축면적이 큰 경기장임
 - 디자인은 폭발적인 축구 열기를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모양의 기본 구조에 전방으로 뻗어나가는 기운을 상징한다.
 - 관중석은 63,060석이며, 지붕은 테플론 막 구조로 관중석의 3분의 2를 덮음. 관중석에서 그라운드까지의 거리를 최대한 좁게 하고 장애인, 고령자, 여성을 배려한 시설이 돋보임
 - 2002 월드컵 당시 빅 매치였던 죽음의 F조에 속해 있던 숙적의 라이벌 잉글랜드와 스웨덴과의 경기와 홈팀 일본과 벨기에의 경기 그리고 대한민국과 패자 결승(3·4위전)을 치른 터키와 브라질, 조 예선에 이어 다시 맞붙은 결선 토너먼트 4강전이 펼쳐진 곳임
- 2006년 독일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B조 첫 경기 북일전이 펼쳐진 경기장이기도 함
- 도쿄 북쪽에 자리 잡은 사이타마 현은 일본 동부의 교통 중심지로 이미 그 속에 있는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는 승용차로는 도쿄에서 약 40분 거리로, 하네다 공항 50분, 나리타공항 80분 거리임
 - 하지만 교통 중심지라는 장점에도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는 우라와시 중심부에서 9km 떨어진 외곽에 배치돼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됨
 - 지하철로 도쿄 역에서 1시간 거리지만 도쿄시 외곽에서는 2시간 이상의 소요시간

이 걸릴 만큼 접근성이 좋지 않음

○ 우라와미소노역(Urawa-misono Station)

- 운영주체 : 사이타마 고속철도
- 개장일 : 2001년 3월 28일
- 일본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 미도리구에 위치한 사이타마 고속철도 사이타마 고속철도선의 역임. 사이타마 고속철도의 역 중 유일한 지상역이며 유일한 사이타마시 소재역임
- 상대식 승강장으로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에서 경기가 열릴 때 임시로 사용하는 승강장도 있음. 우라와미소노 차량기지가 이 역에 위치해 있음
- 역 주변은 '미소노 워딩 시티'라는 이름으로 개발 중이며 좀 많이 험한 편임. 동남쪽에 이온몰이 위치함
- 우라와대학, 메지로대학으로 가는 버스가 다니며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로 갈 때에는 100엔짜리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됨



<그림 10> 우라와미소노역 내외부 모습

(3) 특징

- 일본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의 최대 자랑은 축구 전용경기장이라는 것. 일본내 10개 개최도시 중 축구전용경기장은 이바라키와 고베, 그리고 사이타마밖에 없음. 나머지는 종합경기장임
- 그러나 이바라키와 고베가 기존의 경기장을 개축하는데 비해 사이타마는 최첨단 시설로 새로 건설되었음. 수용인원도 전용경기장 중에서는 아시아 최대급인 6만3천60명임
- 지붕은 관중석의 3분의 2를 덮음
- 맨 앞열의 관중은 선수들의 가쁜 숨소리까지 들을 수 있도록 관중석과 그라운드와의 거리를 최대한 좁혀 설계했고 장애인이나 고령자도 어디든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음
- 태양열발전이나 빗물이용, 최고의 음향효과, 대형영상장치, 보도진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등도 자랑거리임

-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의 보조구장은 연습구장임에도 불구하고 탈의실과 미팅 룸 그리고 마사지 룸 등 국내 구단의 클럽 하우스에나 있을 법한 시설들이 마련돼 있는 점. 즉 특별한 계획 없이 지어졌던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추후 효과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만들어 높은 모습임



<그림 11> 우라와미소노역에서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 가는 길



<그림 12>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 전경



<그림 13> 사이타마 스타디움 2002 보조구장 전경

3. 시사점

- 스포츠산업이 발전한 일본의 경우 복합적 용도로 사용하여 주변 시민들과 관광객 유치에 위한 경영방법을 사용하여 수익을 높이고 있음
- 일본 사례의 경우 축구경기장을 축구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사업 공간으로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프로축구, 야구 등에 의존하지 않은 대형 문화공연 유치가 필요함
 - 종합적인 문화복합단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함
- 스포츠 의·과학센터, 재활센터 등 시민의 건강과 체력향상을 위한 시설 유치·건립으로 시민의 이용권 확보 및 이용률 제고
 - 일본 닛산 스타디움은 경기장 내에 스포츠커뮤니티 플라자와 스포츠 의·과학센터(메디컬센터), 재활센터가 입주해 있음
 - 스포츠커뮤니티 플라자에서는 영양, 생활, 운동습관에 대한 컨설팅, 스포츠 관련 메디컬 체크, 체력측정과 시민의 건강과 체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고, 스포츠 의·과학센터에서 내과는 순환기 질환, 생활관습병 등의 치료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의 개발과 처방을 하고 스포츠정형외과 전문의가 진찰과 검사를 대행하며, 재활의학부문은 체육재활, 심질환, 정형외과 질환, 내과질환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재활치료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의·과학 지원에 의해 스포츠선수를 양성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장애인을 위하여 장애인 편의시설과 고령자를 위한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음
- 도쿄돔과 닛산 스타디움의 경우 경기장부지에 경기장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의 시설을 입주시켜 전체 방문자 수를 높이고 있음
 - 도쿄돔인 경우 호텔, 위락시설 등 복합시설 입주해 있음
 - 닛산 스타디움인 경우 스포츠 관련 공공기관(업무시설)과 위락시설(온천, 아쿠아리움 등) 입주해 있음